트럼프식 관세정책, 허언될 가능성 커

한 용 수의 돌직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공언했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예외·면제가 없을 것이며 상대국의 대응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 조치도 포함했다. 트럼프는 이같은 조치가 불법 이민이나 마약 팬타닐 유입 경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선전포고를 받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적인 대응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상응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의 대응은 트럼프 1기 때를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의 보복관세 부과나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유럽에도 관세 부과를 공언한 바 있으며, 반도체,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도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유럽연합과도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주요국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정책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혼란과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실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지, 얼마나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직후 미국 철강노조는 "매년 1조3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이 미국 내 140만 개, 캐나다 내 23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 등으로 비판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자체가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에서 들여오던 야채와 과일 등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캐나다산 석유값도 올라 이미 오른 미국 내 유류가격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본인의 선거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실현하기 위해 자국 소비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인데, 물가 인상과 일자리 축소를 반길 미국인은 없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공언은 점차 힘을 잃고 허언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긴급 회의를 열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방식, 윈윈하는 방식을 계속 찾아야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대응 시나리오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등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 등도 거론된다. 트럼프의 선전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레 우리의 양보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hys@metroseoul.co.kr

청년·후계농 지원 확대, 실질적 대책 필요

기자 수첩

김 대 환 〈정책사회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의 대출 방식을 기존의 선착순에서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농촌은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억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20년 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에는 예산이 각각 11월과 8월에 조기 소진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에 선별 방식을 도입했지만, 농지 및 농업시설 매입을 위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청년·후계농들이 후순위로 조정되면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올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의 수혜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대출 규모를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만 반영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규 대출 규모를 1조 5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농업계에서는 신규 농업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별 선정률의 차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전국에서 3845명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된 인원은 1033명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선정률이 25.4%로, 신청자의 약 75%가 탈락한 셈이다. 이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수요를 고려한 자금 배정이 아닌, 청년·후계농 선정 비율에 맞춰 배정한 결과로, 실제 수요와는 맞지 않는 배분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후계·청년 농업인의 육성은 대한민국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dh@

오늘의 운세 2월 5일 (음 1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시간약속을 준수. **48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60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2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84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3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외출을 자제. **49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 수를 부른다. **61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7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계획을. **85년생** 행운과 행복은 다른 결말이 오니.

38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50년생** 답답해도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시켜라. **6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74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6년생** 감사한 일이 펼쳐진다.

39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자. **51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3년생** 침묵은 금이다. **75년생** 의사 표현이 정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87년생** 이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신중하게 선택.

40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하니 인내. **5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64년생** 가족에게는 양보와 희생이 따른다. **76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88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고 신망도 받는다.

41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53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65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7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자제. **89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도 먹을 것이 없을 것.

42년생 여의주를 얻었으니 무슨 일이든 도전해도 좋다. **54년생** 흡연은 신중히. **66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자. **78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 **90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다.

43년생 닭이 물 먹듯 술을 조금씩이라도 먹고 싶다. **55년생** 부인의 칭찬에 신바람이 난다. **67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79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91년생**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44년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56년생** 불평보다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지녀라. **68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큰 낭패를 본다. **80년생** 친한 친구 문상갈 일이 생긴다. **92년생**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하고 실행해야 하니.

45년생 혼자는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57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슬픈 현실. **69년생** 연인에게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적다. **81년생** 웃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야 할 것이다. **93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46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해결. **58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익을 준다. **70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82년생** 배가 고프면 반찬이 없더라도 밥이 맛있다. **94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47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59년생** 성과도 좋으니 전진. **71년생**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대하라. **83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95년생** 세상 사는 데 반발심과 불만이 많은 것은 자신의 탓으로 돌아온다.

김상회의 四季

시간으로 만든 백만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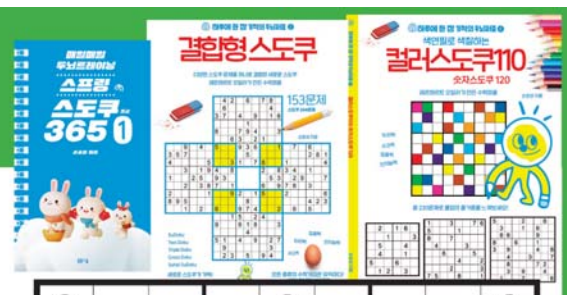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약속 하나만이라도 잘 준수한다면 운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백만장자는 부자나 돈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 사주에 특별한 운이 없는 사람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사주가 그리 특출날 것 없고 운까지 없으면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사주가 형편없는 백만장자가 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 남자는 상담을 와서 자기는 운이 나빠서인지 어려서는 가난한 부모 아래서 끼니를 자주 걸렀다고 한다. 대학교 학비도 직접 돈을 벌어서 마련했고 어렵게 졸업했다.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직장 정치에 치여서 승진에 밀렸다. 답답해서 사주를 보니 관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만 잘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단다. 사표를 내고 처남과 프랜차이즈를 벌였는데 2년 만에 망했다. 재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그 남자의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백만장자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사주는 안 좋고 운도 따르지 않자 그는 이를 악물었다. 대학생으로 과외를 할 때 자기가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재능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아내와 작은 학원을 열고 밤낮없이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쳤다. 열심히 해야 나쁜 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은 강북 중심지에서 명문대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운세가 좋아서가 아니다. 시간약속을 준수했고 시간에 기대야 한다면 생존에서 양보하며 잠을 덜자고 남보다 더 전력을 다했단다. 그는 좋은 운세를 스스로 만들어 오늘의 재산을 일궜는데 사주가 나쁘니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행하여 좋은 운세를 만들어 일구었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7			8	5	1		
						2	3	
	2			7			5	
				2				6
1	8	9	6		2	4	7	3
5				1				
	6			3			1	
	5	1						
		8	5	6			9	1

2				8				3
	8						6	
		3	6	7	5	2		
		9	8		4	7		
5		7				8		9
		8	7		9	5		
		1	4	2	7	6		
	7						5	
8				9				7

4	7	3	2	8	5	1	6	9
8	1	5	4	9	6	2	3	7
6	2	4	9	7	1	3	5	8
9	3	7	1	2	8	5	4	6
1	8	9	6	5	2	4	7	3
5	9	6	3	1	7	8	2	4
7	6	2	8	3	4	9	1	5
3	5	1	7	4	9	6	8	2
2	4	8	5	6	3	7	9	1

2	1	5	9	8	6	4	7	3
7	8	4	3	1	2	9	6	5
4	9	3	6	7	5	2	8	1
6	3	9	8	5	4	7	1	2
5	6	7	2	3	1	8	4	9
1	2	8	7	4	9	5	3	6
3	5	1	4	2	7	6	9	8
9	7	2	1	6	8	3	5	4
8	4	6	5	9	3	1	2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0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